

머 깨끗한 양심의 힘: 과거의 죄와 죄책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32:1-2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2달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시리즈 설교
모든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두렵고도 강력한 증인이 있다.

이 증인이 우리를 정죄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지난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 한다는 것 설교

그날을 대비하여 나와 여러분 모두가 투명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지 파선한다(딤후1:19).

즉 구원받고도 양심의 문제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어 산다. 죄책감, 수치, 원망, 불안, 초조로 가득한 불행한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데서 벗어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오늘 < >, 과거의 죄와 죄책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심은 언제 어디서 생기고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어위 루치의 깨끗한 양심의 힘, 양심이란 무엇인가? 2권의 책을 중심으로 성경을 강해하려고 한다.

양심, 두려운 존재이다

세익스피어 햄릿, 양심은 우리를 다 겁쟁이로 만든다.

우리의 배경, 종교적 전통, 믿는 가정, 불신 가정 상관없다. 양심이 괴롭히면 모두 떨게 된다.

우리는 다 살면서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 양심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자이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난다.

“너는 옳은 것을 위배했어.”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아프다.

살면서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

그때에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에 빠져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곤 한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에게 더 높은 법이 있으니 조심하고 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

도널드 <크로허스트의 기이한 마지막 항해>

1968년 10월 31일, 영국 사람 도널드 크로허스트는 골든 그로브 단독 세계 일주 요트 경주에 참가한다.

이것은 세계 최초 단독 무정박 세계일주 요트대회였다. 당시 사업 실패의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는 이번 경주를 통해 재기를 노리는 한편, 혼자 논스톱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에 비해 요트 경주 경험이 전무했고 그나마도 시간에 쫓겨 준비도 완벽하게 마치지 못한 상태로 항해에 나서게 된다.

초반에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승장구하며 메스컴의 주목을 받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항해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만다. 처음에는 크로허스트도 배에 일어난 문제점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점점 계획보다 조금씩 앞선 경로를 전보로 보내 속도를 날조하더니, 급기야는 가짜 항로를 배회하기 시작한다.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바다 위를 배회하다가 귀로에 슬쩍 무임승차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안전하게 2위로 완주하면 자신의 사기행각이 덮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우승후보로 앞서가던 테틀리의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는 영락없이 우승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만다.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불러올 참사에 압도된 그는 광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최종 도착지인 테인마우스는 크로허스트를 보기 위해 10만 명이 넘는 인파로 붐볐다.

그런데 우승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그의 요트는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크로허스트가 사라진 빈 요트와 거짓 기록이 실린 항해 일지뿐이었다.

책에는 실제로 그가 작성했던 일지가 실려 있는데, 완주-물론 거짓 경로지만-가 다가올수록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의 일지와 각종 신문기사, 그리고 미망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쓰여진 이 책은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파멸해가는 적나라한 모습을 예리하게 묘사해내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더 머시(The Mercy)'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그는 자기 양심이 내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만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극도의 불안, 잠 못 이루는 밤, 절망과 탄식

양심의 소리는 우리의 합리화, 정당화를 통해 잠재울 수 없다.

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 Conscience, con 함께, science 알다.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가는 지식, 우리 삶속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지식,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는 것, 이 양심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양심의 세 가지 특징

1.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바울의 로마서, 유대인은 율법이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방인 율법은 없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유죄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유죄가 되고 이방인은 양심에 의해 유죄가 된다.

롬2:14-16

이방인: 그들의 양심이 증인,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

즉 양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판에 기록된 가장 초보적인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양심의 판단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르다.

미국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금속 검출기: 현대 볼펜 등

어떤 때는 소리를 내고 어떤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유: 감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감도 조정 가능하다.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의 민감도가 다르다. 내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양심은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다.

소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간음, 살인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가나안 족속들 자기 아이들을 몰렉에게 태워서 불로 제사 드렸다. 문제없다.

천주교 암흑시대 종교개혁 시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것이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도 힌두 교도들, 아이들을 갠지즈강에다 던져버린다. 신을 위해서

사람마다 문화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기도 한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 판단의 기준은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너는 올바르게 하지 않았어." 고통과 괴로움 심지어 아마존 밀림의 야만인들도 양심이 있다. 그런데 짐승은 양심이 없다.

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양심 때문에 끄끙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사자가 암사슴과 그 새끼를 잡아먹은 뒤 양심에 찢려 끄끙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속에 양심이 있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이 양심과 함께 살아야 한다.

2. 양심은 조종될 수 있다.

양심의 이런 속성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롬14:1-4, 1-12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음식 문제가 나온다.

고기, 야채, 날 문제, 다 양심의 문제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리는 도덕적인 결정을 승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강도질, 도둑질, 살인, 거짓말, 간음, 음행, 동성애, 부모 학대, 아니라고 말한다.

3. 양심의 힘은 강력하다.

양심은 밤낮으로 우리를 쫓아다니고 심지어 우리를 파멸시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우리의 딜레마: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양심은 가만히 있다. 잘못을 저질러야겠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르고 나면, 특별히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현시대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불안증 감소 약, 수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양심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아침 일찍 눈을 뜨게 한다. 어떨 때는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어떤 남자 그리스도인의 예: 그는 자라나면서 자기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다니고 입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가 22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자기 아버지로 알고 있는 남자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의사가 그의 친아버지라고 말하였다.

이 청년에게 이것은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라는 존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음행에 의해 태어난 나는 가치가 있는 인간일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 어떤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못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요점: 우리의 불행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놀라운 일 벌어졌다.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음행을 고백한 뒤에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정신과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 양심의 소리가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므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의사의 말: 내가 환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내 환자의 반은 줄어들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죄들의 용서, 꿀릴 데 없는 깨끗한 양심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 <죄의 결과>라는 책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죄(sin)라는 말은 자랑스러운 말이다. 그것은 한때 강력한 말, 징조가 좋지 않은 말, 심각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라졌다. 거의 없어져버렸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죄가 다 사라졌단 말인가? 아무도 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메닝거의 말의 핵심: 정신 건강과 도덕/윤리적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덕을 가르치는 사람들 즉 교사들, 부모들이 정신과 의사만큼이나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는 약으로 잠시 불안한 양심을 달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찌르는 양심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좋은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남자, 좋은 그리스도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장로로 섬겨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는 번번이 거절함

“당신은 성품도 좋고 잘 가르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자기 목사에게 고백하였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처녀와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지금 다른 데서 살고 있다. 그는 자기의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기 아내에게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자기의 과거로 인해 매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과거를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내를 속이는 것임을 알고 있다. 언젠가 그 아들이 자기 대문 앞에 와서 설 것을 알고 있다.

아내에게 이것을 말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해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지 이야기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2:46)

왜? 그들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어 죄들의 정죄로부터 그들을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요일3:21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풀릴 데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양심의 기원

창조의 시작으로 가 보자.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 완전한 환경,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런 상태를 무죄의 상태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불안, 초조, 잠 못 이루는 밤 등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유 의지를 발동하여 죄를 짓고 말았다.

창3:1-5

마귀의 말: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 스스로 신이 되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생각하지 말고 느낌대로 해라. 선악과가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느냐?”

당시 이브 옆에 아담이 있었는데 그가 방관하며 침묵의 동조를 하자 여자가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줌 아담은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 이것이 첫 번째 죄일 것이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죄가 전달됨

이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칠들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창2:17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아직 모름, 그래서 아마도 이것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자기들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달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줄 모름

가인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일 것을 알지 못함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줄 알지 못함

그들이 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듯이 지금 우리도 죄를 짓고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가리려고 야구공을 깊은 대양 속에 밀어넣는데 잠시 후에 그 공이 여기저기서 떠오른다.

타락의 결과: 수치심이 들어옴

타락 이전에 그들^나 양심의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죄가 없었으므로. 창2:25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드디어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였다.

창3:8-11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는가? 거기에는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새나 짐승이 그것을 말해 주지 않았다.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말해 주었다.

그리고 양심은 수치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날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일어난다.

모든 아이들이 죄들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나고 있고 자기 부모들의 죄와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왜?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의 수치와 죄의식을 유전으로 물려받는다. 가난, 알코올 중독, 각종 상처, 아이들 학대 등은 아이의 삶에 수치심을 준다. 이런 양향은 참으로 심각하다.

다음 설교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님을 보여 줄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수치심, 그들을 숨게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서로에게서 도망가는 일 자기들의 죄의식을 삶의 한 방에 가두어놓고 생각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양심의 소리를 짓누름.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자신만 아는 삶이 있고 대중에게 노출된 삶이 있다. 위선자.

숨겨진 삶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삶이 있다.

숨겨진 삶속의 죄가 자라면 중독이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스미스 씨. 주일 학교 교사,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 반면에 그는 집에서 폭군처럼 지낸다. 그는 중독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잘 관리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비쳐진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죄와 수치를 감추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하드드라이브에서 더러운 동영상 사진 파일들을 다 지우고 깨끗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원치 않는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애를 쓴다,.

내 포인트: 아담과 이브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수태하고 죄 가운데서 산다(시51:5).

수치는 남 탓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아담과 대면하자 그는 남 탓 카드를 쓴다.

하나님의 말씀 창3:11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탓, 즉 여자 탓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탓

이브 역시 뺨 탓(3:13)

역사의 증언, 죄가 들어오자 남 탓이 시작되었다.

그 사람 잘못, 그 여자 잘못, 부모, 아이들, 환경, 사장, 직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한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하면서 여기에 거짓말과 진실 왜곡이 등장한다.

왜 남 탓을 하는가?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가능하면 하나님께도 숨기려고

다시는 무죄로 돌아가지 못한다.

무죄 상태를 잃어버리면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담과 이브는 다시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여자가 실수로 처녀성을 잃으면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없다.

가족을 버리고 아이들을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한 남자는 자기가 행한 이기적인 일을 되돌릴 수 없다.

중중 아이들은 죄를 짓고 이렇게 기도한다.

“오 주여, 이 사고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거는 과거이고 다시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모든 것이 변하였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자 창3:7이 생겨났다.

사탄이 말한 것의 일부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기리기 위해 무화과 이파리로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앞치마를 만들어 왔다.

“아무도 나의 수치를 보지 못할 거야, 내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예쁜 옷, 좋은 몸매, 재산, 학위, 사업,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 등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돈, 명성, 섹스 등에 집착한다. 그런데 수치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패가 더 진행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위선의 마스크를 더 즐라맨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비쳐지기를 바라면 투쟁한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절망과 죄의식이 커지면 알코올, 마약, 섹스 등에 중독된다. 그리고 이것들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손상을 입은 양심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모두가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를 위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가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숨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롬3:11,12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옷을 가지고 오셨다(3:21).

자신이 만든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것의 가죽을 가지고 오셨다.

의미: 죄를 가리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죄 없는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의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가리지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입으면 더럽혀진 양심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 하나님이 죽이신 그 짐승의 피는 단번 속죄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한 희생물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데 이것은 값이 비싸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우리의 죄와 수치는 가려질 수 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은 죄를 덮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들을 제거해 주신다(요1:29).

바로 이것이 이번 양심 시리즈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져가 덮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

즉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신다.

더 이상 양심의 정죄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다: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살 수 있다.

우리의 과거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이후의 일들

아담과 이브의 죄들 용서됨,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하게 됨. 그런데 이전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변하였다. 짐승의 옷을 입고는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아담: “당신이 먼저 먹었잖아”

이브: 당신이 내 옆에 서서 먹어도 된다고 침묵의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당신 옆에 서 있었지만 먼저 먹은 것은 당신이잖아. 이 난장판을 누가 정리해야 해

“여보, 나를 비난하지 말고 당신을 먼저 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남편으로 세우시고 장정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내 바로 옆에 서서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고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브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물으셨습니다(딤펴전2장 참조).

그렇다고 이브가 죄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들은 서로를 얼마든지 탓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둘이 다투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죄악이 자기 뜻을 펼치면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수치와 남 탓하는 역사로 펼쳐져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속에 이런 악의 근성이 회오리바람처럼 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채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채 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 것으로 인한 죄의식,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죄의식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로 인한 수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에덴동산으로 돌아가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시장에 팔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죄는 여기저기 조그만 싸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결국 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곧바로 주님께 가고 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몸과 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없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전2:9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중대 이슈는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도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의 과거가 칠혹같이 어둡다 해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롬5:20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게임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게임 체인저, 1학년 아이들이 싸우는데 한 아이의 삼촌이 나타나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 앞에서 위력을 잃게 됩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지옥 불속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집니다.

시32:1-2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으면 당신은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수치, 모멸감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양심의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